

2017

Vol.14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 코스카+뉴스레터

KOSCA + NEWSLETTER





# CONTENTS

KOSCA LETTER Vol. 14

코스카레터 제 14 호



2017년 Vol. 14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12



13

## PART 1

### 04 1. 권두사

-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 권준안 부산교통공사 본부장

## PART 2

### 06 2. 협회소식

14 SPECIAL. 01 > 부산의 명소

### 16 3.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21 SPECIAL. 02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22 SPECIAL. 03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24 4.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EVA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28 SPECIAL. 04 > 쉬어가는 유머

29 SPECIAL. 05 > 이달의 경영어록

## PART 3

### 30 5. 전문건설인의 삶

- 건설인 제25호 김창욱 (주)거도산업 대표이사
- 건설인 제26호 장현희 청도건설(주) 대표이사

### 34 6. 건설산업정보 - Part.1

38 SPECIAL. 06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

### 40 7. 건설산업정보 - Part.2

47 SPECIAL. 07 >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48 8.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0 9. 회원사 질의·응답

52 SPECIAL. 08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 제11편: 스마트 그리드

### 54 10. 특별기고

- 협력을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3세대 산학협력
- 동의대학교 김선호 교수

56 SPECIAL. 09 > 그것이 알고 싶다

57 SPECIAL. 10 > 건강 지키미

## PART 4

### 58 11. 회원사 현황

### 60 12. 건설업자의 책무 - 부당특약유형 설정 금지

62 SPECIAL. 11 >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63 SPECIAL. 12 > 부산지역 치과의원 의료업무  
협약(MOU) 체결 안내

64 SPECIAL. 13 > 2017년 건설업 교육이수 안내

65 SPECIAL. 14 > 업무단신+4/4분기 주요일정

### 66 13. 회원사 참여 마당



# 01

## 권두사 MESSAGE

### 도전으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설인을 응원합니다.

#### 곽 동 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존경하는 부산전문건설인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문화발전에 힘 쓰는 노력을 경주하시는 회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코스카레터를 통해 김병철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부산광역시회 전문건설인들의 단합된 모습,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보듬는 성숙한 건설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민의 ‘삶터’, ‘일터’ 그리고 ‘쉼터’를 만들어가는 공기업으로서 ‘당신이 꿈꾸는 부산,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 임직원이 부산의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다른 파트너 못지않게 전문건설업체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노력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런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나가며 더 굳건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산업은 새로운 도전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건설산업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건설기술의 고도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구적 변화의 물결은 스마트 도시, 스마트 건물,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로, 스마트 주택 같은 새로운 방식의 건설을 요구합니다. 더 큰 건설, 더 빠른 건설, 더 경제적인 건설을 뛰어넘는 혁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문화의 선진화입니다. 이제 시대는 건설업에 대해서도 거래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등을 요구합니다. 세계적인 규범에 맞는 표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다른 산업계를 선도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건설산업은 늘 그래왔듯이 이러한 도전을 이겨내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또 다른 도약을 이루어 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고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받도록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그 무덥던 여름은 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와 그동안 미루어왔던 일을 시작할 시기인 듯합니다.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디딤돌이자 중요한 네트워크로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코스카레터 14호 발간을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지역 건설산업이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물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와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지난 8월 부산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율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극 시행,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등을 위하여 귀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인간의 욕구가 지속되는 한 건설산업의 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이 인간의 복지임을 감안하면 건설인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도시철도 확충 및 기술발전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동반하는 관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산 지역건설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전문건설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결집하여 아낌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부산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권준안

부산교통공사 본부장





## 협회 소식

### ❖ 제회의 및 행사

#### 2017회계연도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사회는 7월 7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부산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서는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정인기 교수를 초빙하여 “조직관리 리더십”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부산사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정인기 교수에게 ‘감사의 글’과 ‘캐리커처’를 전달했다.



#### 2017회계연도 제3차 회장단 회의

부산사회에서는 8월 22일(11:00 / 협회 회장실) 「2017회계연도 제3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협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 2017회계연도 모니터 회의

부산시회는 8월 30일(11:30 / 서면 골든뷰 뷔페) 부산시회 회장단 및 모니터링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 모니터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설문조사는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회원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전문건설 모니터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와 모니터와의 대화를 통해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 모니터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 2017회계연도 제2차 및 제3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는 8월 30일, 9월 19일 각각 「2017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와 제3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제11대 대표회원 선출 정수(안), 업종별 전체회의 개최 일정 및 부산광역시 2017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추천 대상자 선정의 건을 결정했으며, 제3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제11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과 2017회계연도 임시총회 개최일자 및 부의안건을 결정하고 협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 2017회계연도 임원연석회의

부산시회는 8월 30일(18:00 / 월강일식집 4층 회의실)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협회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제11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부산시회는 제11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1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시회 제11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위원장을 호선(위원장: 경남종합조경 대표 송유경 / 부위원장 (주)성신창업 대표이사 김홍수)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장선거 관련 세부기준 및 각종 서식(안)을 협의하여 결정했다.

또한, 9월 25일과 29일에 각각 제2차,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11대 회장선거 관련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제11대 회장 후보자 등록요건 서류 심사 및 후보자 기호 추첨, 투표순서 관련 위원 업무 분장 등을 협의했다.





### 제11대 대표회원 등 선출을 위한 업종별 전체회의

부산시회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및 12층 회의실에서 제11대 대표회원 등 선출을 위한 17개 업종의 업종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각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업종별 회원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협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회의 및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회원사의 단합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대표회원 등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업종별 전체회의에서는 총회 구성원인 각 업종별 대표회원과 함께 전국 업종별협의회 대표회원, 업종별 분과위원을 각각 선출하고, 업종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및 사상구청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 및 회장단은 부산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7월 4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과 사상구청을 잇달아 방문하여 노기태 강서구청장 및 송숙희 사상구청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과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과 함께 관내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 확대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으며,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 및 회장단은 7월 26일 부산광역시 김종경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병철 회장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국 최다발주 성과 달성과 제도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타 발주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설계변경 미반영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하도급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종경 건설본부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살아야 부산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만큼, 부산광역시 정책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의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부산교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부산시회(회장 김병철)와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8월 16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부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상호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부산시회 회장단 및 감사와 부산교통공사 권준안 건설본부장 및 건설관계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산교통공사는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감독 강화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시공 예방, 안전의식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다.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 권준안 건설본부장은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협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했다.



###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8월 18일(13:30 / 부산광역시장실)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단체장과 함께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광역시 김형찬 창조도시국장 및 건설관계관, 부산광역시의회 김진영 해양교통위원 등 20여 명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그동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지원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최근 부산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병수 시장은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답하며,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한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부산시회는 9월 21일(목), 9월 22일(금) 양일간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서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종합건설업체를 방문하여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협조 요청했다.

부산시회와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은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삼성물산(주), SK건설(주) 본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재 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부산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실질적인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과 함께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입찰기회 확대를 하도급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건설대기업들은 협회와 부산광역시가 서울 본사까지 방문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업체 발굴 및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대형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모집정보를 시기별로 분석·안내하여 회원사의 수주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협회 소식

### ❖ 회원소식

#### 2017 건설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안내

7월 20일 개최된 「2017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주)성덕건설 김경식 대표이사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건설인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이에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주)성덕건설을 방문하여 김경식 대표이사(부산시회 제10대 부회장)에게 상장과 부상을 직접 전달했다.



#### 2017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7월 21일(금) 1,700여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전문건설인 2017년 제2차 산행」을 실시하였다.

이번 산행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신불산 자연 휴양림으로 기우제를 지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파래소폭포를 다녀왔으며, 천연림이 우거진 계곡을 따라 상쾌한 산바람을 느끼면서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는 시원한 산행으로 회원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해파랑길부산코스

가을이 넘실대는 동해를 만끽하는 방법

정리 | 김미선

해파랑길은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이다.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출발하는 이 길은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삼척, 강릉, 양양을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770km에 달하는 초광역 걷기 길이다. 10개 구간 50개 코스에는 저마다의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다. 이 중 **01구간인 부산코스(73.7km/25시간)**를 소개한다.



### 동해와 남해의 분기점 01코스 (17.8km/6시간)

오륙도해맞이공원에서 출발해 미포에 이르는 코스다. 광안리 해변과 해운대해변을 거치면서 해파랑길 부산 구간 중 최고의 풍경을 펼쳐놓는다.



### 달빛 머금은 길 02코스 (16.3km/5시간)

해운대의 삼포라 불리는 미포, 청사포, 구덕포를 거쳐 대변항에 이르는 코스다. 삼포 중 미포-청사포 구간은 특히 '문텐로드'라고 한다. 달맞이공원 어울마당으로 가는 오솔길 갈림길에서 직진하면 청사포 방향으로 이어진다. 구덕포는 철길 굴다리를 통과하면 나오고, 송정해변까지는 해안도로를 따른다.

송정해변부터 대변항까지 이어지는 차도 옆 인도 걷는 구간은 동부산관광단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임시노선이며, 공사 완료 후 재개통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02-6013-6610~2

홈페이지 <http://haeparang.org>

자료제공 (사)한국의 길과 문화

사진제공 윤문기(걷기여행 작가, (사)한국의 길과 문화 사무처장)



<Tip. 안전여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 안전을 고려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간다.
-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한다.
- 노선 및 관련 기관 연락처를 숙지하고, 현재 위치정보를 숙지하여 걷는다.
- 물 등 비상식품 및 응급약품은 꼭 가지고 떠난다.

- 도로변을 지날 때는 길가에 붙어서 한 줄로 걸어간다.
- 불필요한 귀중품과 장신구 등은 휴대하지 않는다.
- 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걷는다.
-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지 말고, 가파른 계곡이나 절벽 등으로의 모험은 피한다.
- 악천후에는 가급적 도보여행을 하지 않는다.



옛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03코스 (20.5km/7시간)

대변항에서 월전까지는 해안도로가 생기기 전에 걸어 다녔던 옛길을 걷는다. 옛길은 산길이지만, 매우 부드러워 걷는데 별 다른 무리가 없다. 죽성에서는 국수당, 황학대, 죽성교회 등 이 야깃거리가 많다. 일광해변부터 이어지는 이천항, 이동항, 동백항, 신평항, 칠암항, 문중항, 임랑항 등에는 횃집이 즐비하다. 갈매기와 등대를 벗 삼아 호젓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다.



자연과의 정겨운 만남 04코스 (19.1km/7시간)

임랑해변에서 진해해변까지는 동해안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코스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간절곶이 이 구간에 있다. 해송숲과 나사리, 송정리를 지나는 해안풍경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끼게 한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문공사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축소(3억⇒7억) 건의

부산시회는 7월 20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범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자재(직접구매 품목)로 설계하여 현장설치 조건으로 직접 발주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업역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지연공급에 따른 공정관리의 어려움과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분쟁 등으로 시공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전문공사의 경우 단일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공사에 소요되는 핵심 자재까지도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현장설치 조건)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부대공사만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축소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건의

부산시회 7월 24일 건설업체의 채산성 확보와 경영개선을 위해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회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했다.

최근 공공공사를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회원사에서는 적자시공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공사를 실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 품에 반영된 유류대, 건설인력의 인건비 등이 낙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시장가격의 85% 미만으로 도급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회원사 대부분이 하도급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시공 근절,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조속히 상향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했다.



##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위원회 추가 상정안건 제출

### 부산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명단 건설관련 단체 제공 건의

부산시회는 7월 26일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산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확대를 위해 부산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명단이 건설관련 단체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상정안건을 추가로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3일 「2016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허가 조건에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도급 및 시공(하도급하는 경우 70% 이상) 참여 확대, 개인정보 제공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업체 정보를 건설관련 단체에 제공함을 권장사항으로 명시토록 심의·의결된 바 있다.

따라서 부산시회에서는 부산도시공사에 심의·의결 내용을 근거로 분양업체 명단 제공을 요청했으나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입주업체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는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시공참여 확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서 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시 입주업체로부터 건설산업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입주업체 명단이 건설관련 단체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로 상정안건을 제출한 것이다.

## ❖ 지장물 이설 등 정비사업 부산전문건설업체 참여 지원 추진

부산시회는 8월 8일 부산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해 부산지역 49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지장물 이설 등 정비사업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장전3구역, 대연2구역 등 12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부산지역 1,800여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로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앙1군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됨으로써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배제되고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어 부산시민의 분양자금이 서울 등 타 사도로 역외 유출되는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지장물 이설, 정비가반시설 등의 협력업체 선정 또한 자금력이 우수하고 시공사와 연고지가 같은 수도권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수주난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브랜드와 무관한 지장물 이설, 정비가반시설 등의 협력업체 모집 공고 시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 전문건설업체 일거리 및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부산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및 사하구 소재 전문건설업체 현황 통보

부산시회는 8월 8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2017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업체 현황과 사하구 소재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안내하고, 관내 대형 건설 공사 현장의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 2017년 하반기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추진

부산시회는 8월 18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하반기 건설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수집하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 공사를 발주할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건설공사의 완벽 시공을 위한 것이다.

### ❖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업역준수 추진

부산시회는 8월 28일 부산지방조달청 및 부산지역 9개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 기본법령에서 규정한 건설업종별 업무영역을 준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써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된 전문공사가 있을 경우 그 주된 전문공사로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4억원 미만으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써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조달청 및 부산지역 국립학교의 경우 시설물의 보수·개량공사 발주 시 단순히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지방조달청 및 부산지역 국립학교에 향후 실내 리모델링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천정교체공사, 외벽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물의 보수·개량공사 발주 시 단순히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발주를 지양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준수하여 해당 업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 ❖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강화 추진

### 발주자,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에게도 통보 철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도 강화해야...

부산시회는 8월 28일 부산지역 130여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통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수급인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조정되었을 경우 하수급에게도 같은 비율만큼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설계변경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해 열람을 직접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에게는 설계변경 없이 “선시공 후결제”라는 명분의 구두 작업지시 등을 통해 시공을 강요하고 있으며, 시공 후에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수급인이 설계변경 받은 비율만큼 하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변경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하수급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건의한 것이다.

더불어, 수급인이 대가 청구 시 첨부되는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 요청했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건의

부산시회는 8월 28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신기술 보호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건설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15년으로 더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 추진

**리모델링 등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 내진보강 및 재해복구 공사,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등 보수공사 해당 전문건설업종으로 발주를...**

부산시회는 8월 29일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거나, 특허·신기술 반영,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리모델링 공사 등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 내진보강 및 재해복구 공사,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보수공사 등에 대해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였으나, 하자 보수기간 종료 이후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공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종 이상 전문공사의 복합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특허·신기술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의 방법으로써 건설업의 업무영역이 될 수 없으며,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규제다.

이에 부산시회는 향후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 내용에 맞는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준수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9월 19일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부산지역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및 재개발·재건축공사현장 시공사 29곳을 대상으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70% 이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년간 지속되는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 수주물량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타 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이 부산지역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함으로써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신속한 건설인력 배치 및 건설자재의 신속 투입, 지역 근로자 고용을 통한 민원 완화 등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며, 부산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생산업체와 건설장비 임대업체의 동반성장과 부산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부산지역 경제 발전 및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Feeling Movie



1관

### 킹스맨: 골든 서클

개봉 | 2017.09.27.  
 감독 | 매튜 본  
 출연 | 콜린 퍼스, 줄리안 무어, 태런 에저튼

#### 대한민국이 사랑한 스파이 액션 블록버스터!

2015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젤맨 스파이 신드롬을 일으킨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속편으로 완벽하고 새롭게 컴백했다.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은 비밀리에 세상을 지키는 영국 스파이 조직 킹스맨이 국제적 범죄 조직 골든 서클에 의해 본부가 폭파당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만난 형제 스파이 조직 스테이츠맨과 함께 골든 서클의 계획을 막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파이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 속편을 만들지 않기로 유명한 매튜 본 감독이 첫 번째로 연출하는 시리즈 속편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 강한 새로운 조직 스테이츠맨과 골든 서클, 그리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킹스맨 모두 각자의 매력으로 관객들을 매료할 준비를 마쳤다.



2관

### 아이 캔 스피크

개봉 | 2017.09.21.  
 감독 | 김현석  
 출연 | 나문희, 이제훈, 박철민, 염혜란

####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온 동네를 휘저으며 무려 8천 건에 달하는 민원을 넣어 도깨비 할매라고 불리는 '옥분'. 20여 년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녀 앞에 원칙주의 9급 공무원 '민재'가 나타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민원 접수만큼이나 열심히 공부하던 영어가 좀처럼 늘지 않아 의기소침한 '옥분'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민재'를 본 후 선생님이 되어 달라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부탁하기에 이른다. 둘만의 특별한 거래를 통해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영어 수업이 시작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면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간다. '옥분'이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이유가 내내 궁금하던 '민재'는 어느 날, 그녀가 영어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9월 다섯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 2위>는 지난 호에 실린 『언어의 온도』와 『82년생 김지영』이 차지한 관계로 <3위>부터 소개합니다.

정리 김미선



##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 문학동네 | 10,000원



김영하의 소설이 영화로 재탄생하면서 다시 시선을 끌고 있다.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은퇴한 연쇄살인범이 점점 사라져가는 기억과 사투를 벌이며 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살인을 계획한다.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는 잠언들, 돌발적인 유머와 위트, 마지막 결말의 반전까지...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이번 소설에서 김영하는 삶과 죽음, 시간과 악에 대한 깊은 통찰을 풀어놓는다.



##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조유미 | 허밍버드 | 13,800원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후 3년 만에 120만 명의 구독자를 불러 모은 소통과 공감의 메신저, '사연을 읽어주는 여자'가 두 번째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섬세한 공감 능력과 사려 깊은 언어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읽고 다독여 온 작가가 처음으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감성 에세이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라면 공감할 만한 고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BESTSELLER BOOK



##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 마음의숲 | 13,800원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돈 많고 잘나가는 타인의 SNS를 훑쳐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 밥벌이와 어른살이에 지친 모든 현대인에게 이 책을 바친다.



## 사랑의 온도

하명희 | 북로드 | 13,000원



이 작품은 익명의 공간에서 피상적인 관계에 길들어 있는 인간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상처 또한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소설에서는 상처와 고독을 외면한 청춘들이 방황하면서 자기 안의 사랑과 상대를 사랑한 시점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EVA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Self Healing Waterproof System



기술개발자 주식회사 흥신(대표이사 이보성)  
주 소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개경포로 2118  
전 화 번 호 053-965-0103

홈 페이지 <http://www.heungshinenc.co.kr>  
이 메 일 hs9650103@naver.com  
보 호 기 간 2016.05.11 ~ 2021.05.10 (5년)

####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재활용 EVA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 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 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테산 비닐 수지계(ethylene-vinylacetate)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 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 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콘크리트 바탕 요철 정리: 콘크리트 바탕면 정리는 기본적으로 배제하나, 방수층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철 부위가 존재할 경우 바탕 정리를 실시한다.

(2) Acrylic Sheet 포설: 폭 1,000mm 아크릴 시트를 종 방향으로 EVA 시트 상호 간 50mm를 겹친 후 자동 열풍 융착기를 사용하여, 열풍 융착한다.

(3) 누름 콘크리트 타설: 아크릴 시트 포설이 완료된 후 누름 콘크리트를 시방에 따라 타설하여, 공사를 완료한다.



▲ 콘크리트 바탕 요철 정리



▲ Acrylic Sheet 포설



▲ 누름 콘크리트 타설



##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 가. 활용실적

[표 1]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구분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비고
1	매곡, 문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방수공사	팔공건설(주)	(주)흥신E&C	4,631㎡	2012.02~2013.12 (176,000,000)	준공
2	경북대학교 공대2A호관 신축공사 중 옥상 방수공사	(주)선우종합건설	(주)흥신E&C	1,799㎡	2013.06~2013.08 (61,600,000)	준공
3	(가칭)대구혁신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옥상 방수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주)흥신E&C	2,015㎡	2013.01~2014.04 (1,089,652,020)	준공
4	한국 SGI월배문화회관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대륙산업(주)	(주)흥신E&C	837㎡	2013.09~2014.04 (58,300,000)	준공
5	경북대학교 사대부고 교사(2)증축 등 방수공사	(주)유에스종합건설	(주)흥신E&C	902㎡	2014.03~2014.08 (36,758,700)	준공
6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방수공사	(주)담원종합건설	(주)흥신E&C	1,224㎡	2014.06~2014.10 (79,200,000)	준공
7	안동 CGV 옥상 방수공사	(주)다니엘시네마	(주)흥신E&C	1,600㎡	2014.10~2014.10 (61,600,000)	준공
8	한국 뇌 연구원 건립공사 중 방수공사	(주)일송테크	(주)흥신E&C	9,171㎡	2013.12~2015.01 (400,840,000)	준공
9	문화체육부기관 대가야 문화관광파크 방수공사	다인산업개발(주)	(주)흥신E&C	14,970㎡	2013.10~2015.06 (555,826,700)	준공

### 나. 향후 활용전망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향후 건설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건설회사의 수주량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전문건설업인 방수공사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내 포화상태의 건설 시장의 돌파구로 해외시장의 변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확대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신기술의 범위인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평 슬래브(비노출) 복합방수공법은 하자 발생이 많은 방수공법에서 벗어나, 복합방수공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신기술인 Self Healing Waterproof System은 시장의 특성과 구조에 적합한 기술로서 높은 활용성이 예상된다.

###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가. 기술적 파급효과

#####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본 신기술에 사용되는 재료의 경우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자원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기존 기술 대비 재활용 소재의 비율을 높이면서도 품질적 측면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평창 특성을 지니는 아크릴레이트를 EVA 시트 하면에 합지하여 방수성능을 지니는 EVA 시트가 손상되더라도 하면의 아크릴레이트가 수평창을 일으킴에 따라 시트 손상부를 수밀하게 만드는 자가보수 특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방수안정성을 확보하였다.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본 신기술은 기존의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이 가지고 있는 방수성능을 지니는 시트 손상 시 나타나는 누수 문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사용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환경적, 시공적 안정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 및 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의 시공 현장에서 그 활용성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아시아를 비롯한 중동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 시설이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 사업 활성화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의 돌파구로 해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어, 성능적으로 우수한 신개념의 새로운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인 신기술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예상된다.

#### 나. 경제적 파급효과

##### (1) 설계단가

본 신기술은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평슬래브에 적용되는 시트·도막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총 공사비는 45,676원이다.

##### (2) 공사비

[표 2]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비 비교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Self Healing Waterproofing System	건설신기술 제376호	건설신기술 제413호	건설신기술 제536호
재료비	m <sup>2</sup>	21,481	25,398	26,670	21,830
노무비	m <sup>2</sup>	12,070	28,906	22,974	18,633
경비 및 기타	m <sup>2</sup>	12,125	21,944	18,832	15,533
합계	m <sup>2</sup>	45,676	76,248	68,476	55,996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신기술 376호 대비 약 40.10% 절감</li> <li>■ 기존 신기술 536호 대비 약 18.43%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신기술 413호 대비 약 33.30% 절감</li> </ul>		



(3) 공사기간

본 신기술은 콘크리트 슬래브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바탕면의 레이턴스 층을 제거하지 않고, 시트의 훼손을 유발하는 바탕면의 요철만을 제거한다. 또한, 부착력 향상을 위한 바탕면 단면 복구와 프라이머 공정을 사전에 배제하여, 별도의 가사시간, 경화 시간을 요하지 않아, 기존기술 대비 매우 간편하며, 공사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4) 유지관리비

[표 3]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유지관리비 비교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Self Healing Waterproofing System	건설신기술 제376호	건설신기술 제413호	건설신기술 제536호
취득원가	m <sup>2</sup>	45,676	76,248	68,476	55,996
사용원가	m <sup>2</sup>	4,445	10,376	6,696	7,638
폐기원가	m <sup>2</sup>	2,110	2,110	2,110	2,110
총 LCC	m <sup>2</sup>	52,230	88,734	77,282	65,745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신기술 376호 대비 약 41.14% 절감</li> <li>■ 기존 신기술 536호 대비 약 20.23%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신기술 413호 대비 약 32.42% 절감</li> </ul>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신기술의 경우 기존 비노출 복합방수공법과 달리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사용을 배제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성 문제 및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본 신기술의 핵심기술인 자가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는 방수성능을 지니는 시트 손상에 대한 하자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시장의 확대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 신기술 현황 ⇒ 지정 현황 ⇒ 건설 신기술

Story 01

## 중년 남자가 명심해야 할 수칙

1. 모든 걸 책임지려 하지 마라.  
- 능력도 없이 큰소리치다 호되게 당한다.
2. 전원주택 꿈꾸지 마라.  
-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까운 도시에 살아야 한다.  
함부로 전원주택 지었다가 나중에 안 팔려서 애물단지 된다.
3. “내가 왕년에는…”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 검증할 수 없는 지나간 이야기, 듣는 사람도 피곤하다.
4. 자식 비교하지 마라.  
- 자식도 아버지 비교한다.
5. 추울 땐 내복을 입어라.  
- 자신의 건강을 자신할 때가 아니다.
6. 소파와 한 몸이 되지 마라.  
- 소파에 눕기 시작하면 한없이 늘어진다.
7. 늘어진 러닝셔츠 입지 마라.  
- 가뜩이나 늘어진 근육이 추하게 드러난다.  
큰 웃도 입지 마라. 빌려 입은 것처럼 없어 보인다.



8. 한창때를 너무 회상하지 마라.  
- 아직도 남은 날이 창창하다.
9. 술 취하지 마라.  
- 술 깨는 데 하루 걸린다. 하루를 허송세월한다.
10. 인맥 자랑하지 마라.  
- 나는 그를 알지만, 그도 나를 알까?

Story 02

## 사오정이 양호실에서...

사오정이 학교 체육 시간에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골대에 다리를 부딪쳐 무릎이 까지고 말았다. 흐르는 피를 닦으며 양호실로 뛰어간 사오정. 양호선생님은 치료를 해주신 후, 양호 일지에 적기 위해 상처 부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외상이지?”

그러자 사오정은 깜짝 놀라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다.

“저 지금 돈 있는데요.”





“

성공한 기업에는  
반드시 **용감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누군가가 있다.

미국 경영이론가, 피터 드러커

”

# MANAGE- MENT

이달의 경영어록

“

현대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정직한 사람**이다.

영국시인, 윌리엄 워즈워스

”



(주)거도산업

대표이사

김창욱

## 온고지신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건설인

“지나간 옛것에 미래의 답이 있습니다.”

(주)거도산업 김창욱(66) 대표. 동네 이웃집 아저씨같이 수더분하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 그는 속에 무서운 열정을 품고 있는 건설인이다. 옛것에서 배운 것들을 새롭게 변모시키며 기업가의 삶을 화려하게 꽃피웠다.

김 대표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주의자다. 옛것을 익히기만 해서 안 된다. 그걸 오늘날의 신지식, 신기술로 변환시켜야 한다.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이치가 바로 이것이다. ‘온고지신’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쯤을 누구나 알 것이다. 논어에는 온고지신을 받쳐주는 불세출의 명언이 담겨있다. ‘학이 불사즉망(學而不思則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則殆).’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이다. 배워서 깊이 생각해야 창조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다. 옳거니.

‘온고’와 ‘지신’은 인류 역사가 진전해 온 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둘이 어우러지지 않고 제각기 늘면 문제가 발생한다. 온고가 없는 지신은 공허하고, 지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온고는 답답하니까.





김 대표는 좀 특이한 건담인이다. 16년간의 경찰 생활을 거쳐 전문건설업에 뛰어든 게 그렇다. 어려서부터 그는 발명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외상으로 사서 부셔 먹고는 그 맛에 반해 국내 굴지의 라면업체에 편지를 보냈다. 라면을 과자로 만들면 아이 간식으로 좋고 어른들 술안주로도 그만일 거라고, 과자를 만들 때 라면 굵기를 더하고 색과 맛을 가미하면 인기를 끌 거라는 편지에 대기업체가 직접 라면과자를 만들어 그에게 한 박스를 보내 왔더라. 바로 그 유명했던 '라면빵'이었다. 중학생 때는 기존 장난감에 바람개비를 붙여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에 팔았다고, 그러니 소질이 다분했던 거다.

교통경찰관 시절이었던 1989년 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속방지턱을 발명했다. 그는 내심 자신만만했다. 직무제안 심사에서 입상과 일 계급 특진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 "서울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 지방 차별은 당연했습니다." 분노한 동료 경찰관들이 나서 그를 지원했다. 특허를 냈고, 의장권을 획득한 뒤 사업까지 나섰지만 5년간의 성적은 참담한 실패였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자금과 마케팅이 받쳐주지 못하니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광고 끝에 그는 일생일대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복을 벗고 사업에 본격 나서기로 말이다. 1994년 전문건설 면허가 나오던 해,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중고 1t 트럭을 타고 영업과 현장 일에 나섰다. "3년 내 공장을 짓겠다고 목표를 정했고 매진한 결과 기적처럼 1997년 김해공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9억 원에 달하는 은행 빚도 5년 만에 갚았구요."

공장을 짓던 해 외환위기가 덮쳐 큰 위기를 맞았다. 은행 이자가 무려 3배까지 뛰었고, 그는 적금을 해약하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생존 위주의 전략으로 맞섰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충분하기에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큰 힘이 됐음은 물론이다. 다행히 차선과 표지판, 신호등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고, 그는 어렵사리 위기를 헤쳐나갔고, 효자 상품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과거 직무제안에서 '물먹었던' 과속방지턱이 상품화되자 날개 돌친 듯이 팔려나갔던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은 전국의 아파트 단지과 백화점 주차장 등지에 필수품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다.

새천년 들어 그는 발명력을 발휘해 '히트 2탄'을 터뜨린다. '롤링베리어'라 불리는 방호벽이 그것이다. 도로 커브지점에서 차량이 충돌하면 롤러가 회전하면서 생명과 차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롤링베리어'. 시속 100km의 속도의 승용차 충돌 시험에 합격하자 주문이 밀려들어 현재 전국 400여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미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영국

일본 프랑스 등 6개국에서 국제특허를 받았고, 말레이시아에는 이미 수출까지 한 상태.

"만덕1터널에서 온천장으로 내려가는 커브길이 있는데 사고다발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롤링베리어를 설치한 뒤 큰 사고가 사라졌고, 번영로 터널들도 설치 이후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가 어떻게 롤링베리어를 발명하게 됐을까. 놀라지 마시라. 그는 책상 위에 놓아뒀던 주판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주판알을 보며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생각한 거죠. 옛날 골동품인 주판에서 혁신적인 신상품을 만들어냈으니 이게 바로 '온고지신'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하하."

그는 발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있던 것을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다. 맞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생각해 보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면서 뉴턴의 중력 법칙은 틀린 것이 됐나?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원리를 보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완했다. 바로 이게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뭔가. 그래서 김 대표는 어디를 가든지 옛것을 유심히 관찰한다. 우리가 눈여겨 배워야 할 장점이 아닌가 한다.

글\_ 최원열





청도건설(주)

대표이사

장현희

# 긍정의 힘으로 무장한 건설 현장의 산증인

“희망만 있다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닦치면 다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주역에 나오는 ‘궁즉통(窮則通)’의 개념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듯하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지 말고 비약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이다.

장현희(74) 청도건설(주) 대표는 ‘긍정성의 힘’으로 무장된 건삶인이다. 그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단언한다. 옹골찬 그의 표정에 ‘하면 된다’는 정신이 짙게 배어 있다. 철학자 니체가 그랬다. 다가온 절망, 즉 시련을 긍정하라고. 모든 게 잘될 거라는 긍정적 신념을 가지라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절망과 시련을 넘어설 만한 도약력을 갖출 자신을 긍정하라는 것! 이게 니체 긍정 철학의 핵심이다.



장 대표의 삶이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4·19혁명이 나던 1960년,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으니 지금까지 무려 57년을 공사장 밥을 먹은 산증인이다. 충남 논산이 고향인 그는 ‘오야지’(공사현장 책임자)로 있던 서울 큰 매형 아래서 일하기 위해 상경해, 주경야독의 길을 걸었다. 매형의 도움으로 야간 선린상고를 졸업한 후 회사 경리로 취직하려 했으나 ‘시다’로 방향을 확 틀었다. 그의 일숨씨를 눈치 챈 매형에 의해서.

“미장 공사를 하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학생들이 분노 차 뒤에 이승만 동상을 매단 채 행진을 하더라고요. 총소리까지 들었으니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서 일한 셈인가요?”

매형의 도움으로 그는 미장 기술의 정수를 터득할 수 있었다. 명장으로 손꼽히는 미장공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하숙하며 3년간 줄곧 앞에서 배울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그는 눈썰미가 대단해서 한번 배운 것을 손쉽게 터득했고, 여기에 강인한 의지력이 더해지면서 어린 나이에 ‘시다’에서 ‘반장’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다.

한 달 임금이 800환 정도로 장인급 기술자의 30% 수준이었지만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저축도 많이 할 정도였다고. 큰집이 논산에서 청주로 이사하는데 땅 1,800평을 사 줬더니 더 말해 뒀하.

장 대표의 부산 생활은 1968년부터 시작됐다. 그의 나이 26살. ‘오야지’의 청을 받고 대신 일을 하러 내려 온 그는 결국 부산에 등지를 틀게 됐다. “당시 서면로터리 천우장 맞은편 양과점 공사를 맡았는데 제 숨씨가 입소문을 타면서 일감이 몰아닥쳐 계속 일하게 됐지요.”

이후 그는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1970년대 말 사직 주공과 시영아파트 단지 공사를 마친 후 ‘오야지’로 승진해 전포동 시영아파트와 덕천동 시영아파트 등 대형 공사를 도맡아 하면서 시쳇말로 ‘떼돈’을 벌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장 물량이 엄청났습니다. 요즘처럼 골조가 아닌 블록과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뿔싸,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 그에게 첫 시련이 닥쳤다. 1980년대 초반 그는 만덕주공아파트 사업장에서 큰 시련을 만난다. 인건비가 50%나 뛰어버린 것이다. 건설업 초호황 국면에서 인력이 탈리면서 임금이 치솟은 게 원인이었다. 현장소장에게 하소연해 도움을 받기로 했지만 갑자기 소장이 바뀌면서 도로 아미타불이 됐고 모든 걸 혼자 떠안아야 했다. 그가 모은 전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다.

“금곡동과 덕천동 산복도로 땅이 평당 5천원, 화명동 도로 쪽 땅이 1만 5천원으로 시세가 좋을 때여서 땅을 사두려 했는데 모조리 날렸습니다. 만약 그때 계획대로 땅을 샀으면 재벌이 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뚜기’ 장 대표는 내려앉지 않았고, 불굴의 투지로 운명에 맞섰다.



신용을 목숨처럼 여겼고, 노임 지불기한을 철저히 지켰다. 채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진 결과 1988년부터 건설 호황의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15층짜리 양산 최고층 아파트로 시작해 연간 4천 세대분 공사를 맡으며 그는 ‘잃어버린 부’를 착착 쌓아올려 나갔다.

두 번째 위기는 9년 후 외환위기로 급작스럽게 들이닥쳤다. 워낙 순식간에 덮쳐 손쓸 새가 없이 당했다. 거래하던 종합건설회사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장 대표 역시 18억 원 부도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수 억원을 맡겼던 삼부와 청구파이낸스까지 도미노로 무너지니 방법이 없더군요. 아이들 대학교육비도 마련하기 힘들디다. 가지고 있던 땅도 팔리지 않아 실로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렇게 3년 이상을 버텼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긍정성으로 지켜내자고 수없이 되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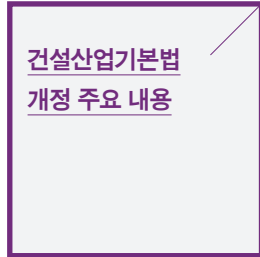
시련을 이겨내자 운명의 여신이 그에게 미소를 보였다. 2001년부터 다시 찾아든 호황을 그는 놓치지 않고 움켜쥐었고,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설사 위기가 다시 닥친다 해도 그는 겁내지 않는다. 그걸 이겨내고 올라설 의지와 힘이 있다고 믿기에.

“바닥으로 고꾸라지더라도 그 벽을 넘어설 시도를 계속하겠는가? 그렇다면 그 벽 너머에 있는 것은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다.” 장 대표는 니체의 이 물음에 당당히 “예”라고 대답하는 긍정의 건삶인이다.

글\_ 최원열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9일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사유 개정

【법률 제14849호, 201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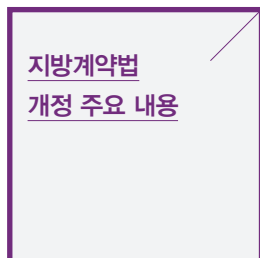
<b>현행</b>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b>개정</b>	_____ —, <u>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u> _____.
<b>이유</b>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명확히 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

### 2. 시행일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18. 2. 10.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행정안전부에서는 8월 9일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8235호, 2017. 8. 9.】

- 지식기반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삭제 (제44조 제1항 제8호)

###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령 제5호, 2017. 8. 9.】

-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신설 (제84조 신설)

### 3. 시행일자: 2017. 8. 9.(수)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 8월 7일자로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개정 주요 내용**

### 1.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당초	변경
하도급 심사 '적정' 최종 평가점수 상향	주요공종 90점 이상 단순공종 80점 이상	90점 이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82% 미만 저가하도급 안전사고 유발업체 부패행위 유발업체	82% 미만 저가하도급 안전사고 유발업체 부패행위 유발업체 체불이력 하도급업체
체불업체 감점기준 신설	최대 5점 감점	최대 11점 감점

### 2. 시행일자: 2017. 8. 14.(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19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1.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공공기관 범위 명확화 (제30조의2 제6항)

(신설)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명확화

### 2. 전문건설 일부 업종명 개정 (별표1, 별표2)

(현행)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개정) 습식·방수공사업

### 3.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상향 (별표6)

(현행)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4,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개정)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6,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4. 시행일자: 2017. 9. 22.(금)부터 ※ 전문건설 업종명 개정(별표1, 별표2)은 2018. 1. 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공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9월 19일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 제28338호, 2017. 9. 19.]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권고대상 보조사업자 기준 설정 (제2조의2)**

-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신설 (제84조 신설)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범위 축소 (제11조)**

구분	기존	개정	비고
종합공사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의무
대상품목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의무
세부품목별 추정가격	-	5백만원 미만	임의

**3. 규모별 경쟁제도 폐지 (제9조)**

**4. 시행일자:** 2017. 12. 20.(수)부터 ※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17. 9. 22.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국토교통부에서 9월 20일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1. 공공공사 발주자 직접시공 확인방법 구체화 (제25조의6)

- 직접시공의 준수 확인 의무가 있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2.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 세분화 (별표3)

업 종	주요공종	업 종	주요공종
가. 실내건축공사업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거. 수중공사업	수중공사
나. 토공사업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너. 조경식재공사업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다.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라. 석공사업	석공사	러. 강구조물공사업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마. 도장공사업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머. 철강재설치공사업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버.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서. 준설공사업	준설공사
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어. 승강기설치공사업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제1종)
차. 기계설비공사업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쳐.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커.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터. 난방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제1종)
파.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퍼.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제2종)
하. 포장공사업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허. 난방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제3종)
		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 3.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간소화 (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하여 건설업체의 공사대장 통보 부담 완화

### 4. 등록 등 관련 확인사항·서식 개정

- 건설업 등록(변경), 양도합병상속 신청 시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
-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기타서식 개정

### 5. 시행일자: 2017. 9. 22.(금)부터

- ※ 제25조, 제32조 제1항,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7호의2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은 2018. 1. 1.부터 시행
-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은 2018. 2. 4.부터 시행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Q&A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3월 27일 공포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헛갈리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ASE 01

#### 비매품인 VIP 초청권의 가액 평가

**Q** ○○중앙부처 甲심의관은 대학 동창이자 로펌에 근무하는 친구 변호사 A로부터 유명 피아니스트인 A의 아내의 피아노 독주회 VIP 초청권 4장을 선물 받았는데(甲과 A는 직무관련성 없음), 해당 VIP 초청권은 비매품이라 시장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초청구역은 R석보다 좋은 좌석으로 배정되어 있었고 R석의 입장권은 30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심의관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VIP초청권은 R석보다 좋은 좌석으로 배정되므로 R석의 입장권이 30만원에 판매되었다면 VIP초청권 1장당 통상의 거래가격은 최소 30만원은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甲심의관은 1회 100만원을 초과(30만원×4)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甲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A는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CASE 02

###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Q**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甲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리사 B는 사무관 甲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甲이 이를 거절한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6호). 甲은 변리사 B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7조제1항).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CASE 03

###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Q**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B의 아버지 A는 자녀 B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甲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甲,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10호). A는 제3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甲은 A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B의 성적을 올려주었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CASE 04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Q**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 점 소속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CASE 05

### 골프장대의 가액 평가

**Q** 건설 관련 중앙부처 국장인 甲은 주말에 부실건설사로 의심되어 조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의 임원 B, C, D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각자 비용을 5만원씩 나누어 냈지만, 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주말 골프 비용은 25만원 정도인 경우 甲,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골프장대의 가액은 그린피의 시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 상당(골프비용 시가 25만원, 甲이 지출한 비용 5만원)의 골프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B, C, D는 공무원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하였으므로, 각각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A건설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B, C,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업체 명단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사에 관련내용을 안내했다.

2017년도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연번	상호	대표자	하도급법 위반횟수	누산벌점	연속여부	기업규모
1	(주)동일	김종각 김달수	4	11.25	2년 연속	중견기업
2	대경건설(주)	이윤우	3	8.50	3년 연속	중소기업
3	(자)군장종합건설	채이석	3	5.50	1	중소기업
4	세영종합건설(주)	김석기	3	5.00	1	중소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기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향후 1년간(2018. 6. 28.까지) 게시할 예정임.

##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행 안내

조달청에서는 입찰자의 설계서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수요기관(발주자)에서 나라장터에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를 게재하면, 입찰자는 인터넷에서 직접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한 서비스이며, 해당 공사의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일반공사의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열람이 가능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공사(PQ, 실적제한)는 입찰참가자격 적격 통보 업체만 열람이 가능하다.

- 열람방법: 나라장터 ⇒ 시설공사 입찰공고 ⇒ 설계서 ⇒ 다운로드
- 시행시기: 2017. 7. 21. 이후 조달청 계약 접수분부터 적용

##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17년 대비 16.4% 인상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2017. 8. 4.】하였다.

### 1. 최저임금액

- <2017년> 시간급 6,470원 ⇒ <2018년> 시간급 7,530원

### 2. 업종 구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 3. 적용기간: 2018. 1. 1. ~ 2018. 12. 31.

## 201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계획 안내

### 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3개 기종에 대한 수급 조절을 시행하며,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등록을 허용했다.

#### 1.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 기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제15호 콘크리트펌프

#### 2. 시행일자: 2017. 8. 1.부터

#### 3. 수급조절 기간: 2017. 8. 1. ~ 2019. 7. 31. (시행일로부터 2년간)

## 제2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 부산사회 회원사 소속 기능인, 실내건축제도(1위, 3위), 전산응용토목제도(2위) 종목에서 입상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와 기능수준 향상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우리 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5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9월 22일 충북 음성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1992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로 25회째인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체 기능인은 총 14개 종목(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실내건축제도, 방수)에 228명이 참가한 가운데 58명이 입상하였으며, 이 중 20명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 소속 기능인으로 다시 한번 직접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업계 기능인들의 숙련된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부산사회는 소속 회원사 기능인이 9명 참가한 가운데 실내건축제도 1위[이상희, (주)에멕], 전산응용토목제도 2위[유수원, (주)제일공사], 실내건축제도 3위[김민휘, (주)에멕]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1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며, 각 종목별로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원, 2위~3위 입상자에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상과 각각 상금 100만원, 70만원이 수여된다.

또 수상자 전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종목의 기능사 자격이 부여되고, 10월 17일부터 20일(3박 4일)간의 해외 산업연수(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도 주어진다.



##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계약 추정제도 적극 활용 안내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공사 시공 중 추가 구두 작업지시를 수급인(하수급인)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변경)계약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약서 미작성, 구두 작업지시 등으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의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 14015호, 2016. 2. 3.)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0호, 2016. 8. 4.)을 개정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작업지시 내용 등을 발주자(수급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 추정제도를 도입·시행(2016. 8. 4.)하였다.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추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 계약 추정제도란?

-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하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자(수급인)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의 의사를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 ○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및 방법

-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의 사항
  - 그 밖에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한 사항
  -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 내용증명 우편
  - 전자문서
  - 그 밖에 통지 및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 서면의 보관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서면 자료를 도급(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



##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실사 가능 현장 추천 안내

### 실사 현장 추천 저조... 현장 실사는 개정을 위한 필수 작업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표준품셈 개정은 현행 품셈에서 불합리한 항목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품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심의위원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거쳐 최종 개정·확정된다.

그러나, 품셈 개정 전 선행 작업인 실사를 위한 현장 추천이 저조하여 품셈 개정업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상향이 필요한 품의 항목 또한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부산시회는 2018년도에 적용될 표준품셈에 대하여 불합리한 품의 항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사 가능한 현장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한편, 현재 2018년도 적용 품셈 개정 대상 항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점검기간:** 2017. 8. 28.(월) ~ 9. 29.(금)까지(1개월간)
2. **점검내용:**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
3. **문의처:** 사업장과 가까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

사업장 소재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남구, 사하구, 서구, 동구, 중구	근로개선지도1과	051-850-6385~6, 6495, 6446, 6443
연제구, 영도구, 부산진구	근로개선지도2과	051-850-6420, 6422~3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안내

부산광역시에서는 8월 30일자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74호, 2017. 8. 30.】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향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경·고시 주요 내용

#### 1.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확대

(당초)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인센티브
80% 이상	3%
70% 이상	2%



(개선)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인센티브
90% 이상	5%
80% 이상	4%
70% 이상	3%
60% 이상	2%

#### 2. 시행일자: 2017. 8. 30.(수)부터

##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안내

올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대비 3.53% 상승  
186,026원...일반직종 175,804원

올 하반기 적용 건설업 일평균 임금이 상반기에 비해 3.53% 오른 186,026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회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해당 조사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건설 주요 15개 직종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반장 132,631원 △보통인부 106,846원 △특별인부 127,391원 △비계공 187,771원 △형틀목공 179,290원 △철근공 179,665원 △콘크리트공 167,893원 △포장공 148,118원 △조적공 153,959원 △건축목공 169,062원 △방수공 126,051원 △미장공 169,508원 △타일공 164,998원 △배관공(수도) 158,481원 △건설기계운전자 154,499원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임금실태를 참조하면 된다.

## 굴착공사 신고 제도 안내

### 도시가스(고압가스) 배관의 파손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고압가스) 배관의 굴착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거 굴착공사 전에 미리 굴착공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배관 설치 및 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공사와 건물 신축공사 등 토지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폭발 위험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안전하게 굴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굴착공사 착공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도로, 아파트 단지, 사유지 내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수작업 제외)
2. **신고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전화 1644-0001 | 인터넷 www.eocs.or.kr | 모바일 m.eocs.or.kr)
3. **신고절차:** 굴착신고 ⇨ 접수번호발급(온라인) ⇨ 배관유무확인(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조치(한국가스안전공사)  
⇨ 굴착개시통보(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입회요청(굴착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사개시
3. **미신고 시 벌칙사항:**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건설업 윤리 및 실무 의무교육 안내

### 신규등록업체는 의무교육, 영업정지업체는 임의교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2016. 2. 12. 이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대한전문건설협회 교육기관 지정)하여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 등록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이수 시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해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확인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방법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osca.or.kr>)를 통하여 교육일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건설교육센터(☎02-3284-1080)로 문의하면 된다.

구분	10월	11월	12월
교육일자	24일(서울)	2일(부산)	1일(대전)
	31일(전주)	7일(서울)	12일(서울)
	-	16일(광주)	22일(대구)
	-	21일(서울)	28일(창원)





## 건강보험·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철저 안내

부산시회는 9월 13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누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건설현장을 건설업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므로 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장별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설업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 적용되어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함에 유의!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 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 건설시공현장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설 및 조선업계에 대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을 2017년 10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예방감독은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에 사전예고를 통한 자율개선시간(2주) 부여 후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이에 시회는 9월 13일 회원사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건설시공현장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

1.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 기간: 2017. 9. 7.(목) ~ 2017. 10월 말

2. 감독대상: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 3. 감독 실시분야

- 추락위험 예방조치
- 크레인 사용작업 시 안전조치
- 밀폐공간 작업 시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조치 등

#### 4. 기타사항

-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을 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지속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감독 강화 예정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김미선

아는 것이 힘이다



### TIP 01

####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깜빡 잊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물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발견했을 때, 먹어도 될지 버려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유통기한은 판매점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고, 식품별 적정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했을 경우 우유는 제조 후 45일, 두부는 90일까지 소비기한**이 길어진다.

### TIP 02

#### 참치캔, 똑똑하게 먹는 방법

유용한 식재료로 두루 사랑받는 참치캔. 개봉 후 내용물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개봉한 참치캔은 되도록 빨리 먹거나,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참치캔에는 방부제가 없어서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세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단, 찌그러진 참치캔은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다. 통조림이 구겨지면 이음새로 미생물이 들어가거나 녹이 슬어 내용물이 상할 수 있다.

### TIP 03

#### 처방받은 약이 남았을 때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 남아도 버리지 않고 임의로 재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약을 오래 보관하면 효능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질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용 중인 약은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면 된다. 약을 복용하다 남은 경우에는 임의로 버리지 말고 보건소나 약국의 폐기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 유권해석

## 01

## 환경관리비 정산 시 소급적용 가능 여부?

## [질의]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에 의거 계상되는 환경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사용 후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하는데 당시 현장개설 및 공사시작 시점이라 미처 확인을 득하지 못하여 정산 처리하지 못한 비용을 공사 종료 전에 증빙첨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할 경우 공사기간 내에는 '소급적용'을 받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산대상 비목의 정산청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이나 약정에서 그 절차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금액조정 청구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제5항 및 동제20조9항)

[근거] 국민신문고, 2010. 4. 29.

## 유권해석

## 02

## 돌관작업 및 야간작업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질의]

당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로 경기도 소재 시청에서 발주한 '○○터널 보강공사'를 낙찰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계약공기는 1월 20일 착공, 5월 19일 준공으로 하여 시공 중이나, 시의 방침에 따라 준공일(실 사용일)을 3월 29일로 맞추어 달라는 요구에 의해 돌관 작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의 예정공정표에 따르면 공정계획 시 1일 2교대 작업으로 산출하여 4개월로 되어 있으며, 설계내역서의 산출 근거에는 야간 작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예정공정표에는 1일 2교대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또 2개월 정도 단축하여 준공을 위하여 당사는 이를 지키기 위해 돌관 작업비가 과다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사용일(실준공일)에 맞추기 위해 휴일뿐만 아니라, 야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노임 부분에만 가능한 것인지 또는 약조건(장비의 한계치까지 사용)에 따른 장비까지도 고려 가능한 것인지 여부?

## [회신]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5절 “6-가”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6-나”에서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상황,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2017. 9. 20.



## 건설판례

# 03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손해배상]

####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권리의무관계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기성고 비율을 확정하는 방법 및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이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한쪽 당사자가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법적 성질 /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총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총당되고 남은 경우,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결요지]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경우 한쪽 당사자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총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총당되고 남은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 회원사 질의·응답



### Q.01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공동  
도급 받았으며, 총 공사금액 3억원 중  
A사 2억, B사 1억원으로 분담이행할  
경우 A·B사 모두 재해예방전문기관  
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전문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 >> 질의의 경우, 총 공사금액은 3억원이나 A·B사가 각각 지분별로 나누어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을 진행한다면 공사금액이 각각 2억원, 1억원에 해당되어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는 아님.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051-520-0510 확인

### Q.02

공공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주민들의 민  
원으로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상황  
으로 당초 계약서상의 준공일자가 초과  
한 상태(변경계약 미체결)임. 이때 건강  
보험·국민연금의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 계약체결 당시의 준공일자가 초과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 >> 기존에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는 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의 공기만 인정가능하며, 현재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가 없을 경우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해서는 처리할 사항이 없음.
- >> 단,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변경계약서를 기준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다시 하여야만 해당 현장에서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 중 월 20일 미만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 및 보험료 납부가 면제됨.

### ★ Q.0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면제  
대상 범위는?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대상은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3자 간에 합의한 경우와 건설기계대여 총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면제됨.

※ 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대상임에 유의

## ★ Q.04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가능함.

## Q.05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기사 2명을 보유 중인데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 증빙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사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및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함.

>> 또한, 기술능력이 일시적으로 미달(50일 이내)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음.

## Q.06

2016.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 미이수 시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6.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 등은 홈페이지(<http://edu.kosca.or.kr>, Tel. 02-3284-1080)에서 확인 가능함.

※ 20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가 영업정지기간 내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 감경받을 수 있음.

## ★ Q.07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전문공사로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시공경험 평가 시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음.

>> 현재 협회에서 확정 공시(2017. 7. 1.)한 실적(2014 ~ 2016년 실적) 외에 2017년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발주처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기성실적증명서로 인정)까지 인정 가능하며, 4년 미만 실적으로 평가되므로 추정가격 대비 60%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별도의 감점이 없음.



내일을 예측하고 싶지만 1년, 2년, 3년 후의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식, 정보, 창조의 시대에서는 그 예측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이 기초이고 무엇이 표준일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에 그 변화의 속으로 함께 산책해 본다면 그 재미도 쓸쓸할 것이다. 이게 공상이라도 좋다. 인류의 발전은 공상이 현실로 지속해서 다가오는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 제11편

# 스마트 그리드

## SMART GRID

#### ● 스마트 그리드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전력회사의 통합제어 센터와 발전소, 송전탑, 전주, 가전제품 등에 설치된 센서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전력을 주고받음으로써 효율적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스마트 가전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기술이다.



#### ● 기존 전력망과 스마트 그리드 비교

항목	기존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발전형태	중앙집중형	중앙집중형, 분산(개별 발전)형 복합
연료	화석연료 의존도 높음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전력의 흐름	공급자에서 소비자로의 단방향	공급자와 소비자 간 양방향
전력망 운영주체	공급자 중심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교류를 통한 전력망 운영



## ● 스마트 그리드의 이점

### ① 피크 시프트 가능

피크 시프트는 1일 중에서 전력수요가 피크에 도달한 날 중 전력 소비의 일부를 수요가 작은 야간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야간에 축전지를 충전해놓고 낮에 그 충전된 축전지의 전력을 사용하는 등과 같은 방법이다.

### ② 소비자도 전력 사용량 관리 가능

각 가정이 홈에너지관리시스템(HEMS)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측도 전력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실제 전력 소비량을 파악함으로써 절전과 에너지 절약의 동기가 될 수 있다.

### ③ 인건비 절감

기존의 전력 미터는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매월 검침원에 의한 검사가 필요했지만, 그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검침원이 필요 없으며, 그만큼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 ④ 경제 활성화 기여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와 맞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⑤ 광역 정전이 어려워진다

원래 광역에 걸친 정전은 잘 발생하지 않는 편이나,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됨으로써 보다 덜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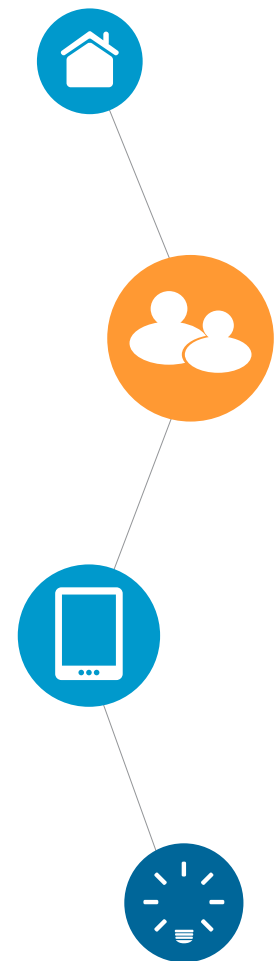
## ● 스마트 그리드의 문제점

### ① 비용 문제

스마트 그리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미터를 각 가정이나 빌딩이나 공장 등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사비, 계량기 자체 비용 등이 건물마다 필요하게 되므로 실현에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든다.

### ② 보안 문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위해 우리가 평소 PC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때처럼 바이러스 및 무단 액세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에너지 설비를 소비자가 다룰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동의대학교 김 선 호 교수  
(메카트로닉스공학)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

## 협력을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3세대 산학협력

큰 의미의 산학협력은 시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늘 작용해 왔으며 시대에 따라 그 형태도 달라져 왔다. 산업화를 시작한 초기에는 물품을 제조하는 일을 의미하는 공업에 집중해 왔으며, 1990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대 들어 공업에 금융 물류 유통 등 서비스 기능이 더해지면서 산업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은 산학협력의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히는 추세에 있다. 지역사회란 공업 산업 외에 교육 연구 단체 협회 NGO 활동 등을 포함한다. 사회발전 동력을 지역 사회로 확장하게 된 것이다. 3세대 산학협력 시대가 열린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3세대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동의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 사업인 LINC+사업을 유치하여 5년간 약 220억 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사업목표는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장 적응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남권 주력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단발적이고 일방향적인 산학관계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하고 동반 성장 가능한 대학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창생활 중에 다양하고 고도화된 산학교육 경험과 기회를 얻고, 기업들은 교육 참여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현장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산학협력 교육 고도화,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 그리고 산학협력 확산사업을 운영한다.

첫 번째로, 산학협력 교육 고도화 프로그램의 예를 하나 들자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캡스톤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주제를 제안받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교수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팀은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게 제시한다. 기업이 그 결과에 만족하면 2단계로 학생-기업-교수가 한 팀이 되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에게는 아이디어와 인재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비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기업문화, 기업가정신, CAD, 3D 프린터, ERP 등을 가르쳐 사회에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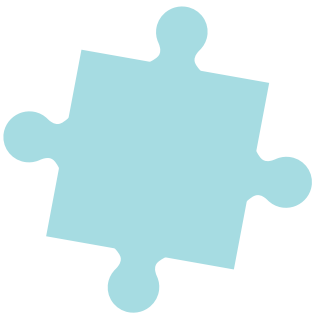


동의대학교 LINC+사업단

두 번째로,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치공유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가치공유센터는 대학-기업의 관계를 협력을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이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주문형교육과 산학협업체 운영을 들 수 있다. 주문형교육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드는 트랙형 교육과정으로 20개를 운영한다. 아울러 기업은 직접 교육에도 참여하게 된다. 산학협업체는 교수와 기업인이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50개의 풀뿌리 모임으로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산학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확산사업으로는 학문을 뛰어넘는 크로스 오버 코어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개의 마을(ville)을 운영하는 크로스-인더스트리 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아르텍빌(artechville)에서는 예술과 공학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메이커스빌(makersville)에서는 창출된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디자인빌(designville)은 메이커스빌을 통해 만들어진 시제품에 디자인 기능을 부여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수행하게 된다.

LINC+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은 동남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학교가 되고자 한다.



# 하도급 분쟁 해법

## - 불공정거래 원인



### 불공정거래의 원인, 대처하려면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조치하면서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그간 억눌려 있던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려는 양상이다.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왔다. 국내 대형건설사의 하도급협력사 사장을 만났다. 지난 3년간 억울하게 당해왔던 것을 펼쳐놓으니 3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손실을 봤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적자를 봐 왔는데 이유가 뭘까? 그것은 현장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정말로 불공정거래의 이유일까? 살펴보니 불공정거래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첫째, 계약금액에 여유가 없다.** 즉 최저가 입찰가로 낙찰되면 이익에 여유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외부적 요인, 즉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착공 지연이나 안전 사고로 중단이 되는 경우, 선행공사의 지연으로 준공기일 맞추느라 모든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경우, 주말이나 야간작업 등 돌관공사가 많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공사비가 늘어나 피해를 보게 된다.

**둘째, 설계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공사비가 계속 늘어난다. 심지어 19차까지 설계가 변경된 경우도 있다. 설계도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셋째,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명확하게 공사비 증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조항보다는 '당사자 간에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야 그나마 나중에 합의의 여지가 있다.

내게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상담 오는 것 중에 많은 경우가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하도급법에서는 대체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금지)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니고 원사업자(발주자 포함)의 책임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찌 보면 내 책임이나 상대방 책임이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해결의 시작점이다. 모든 거래에는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으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공정거래연구소 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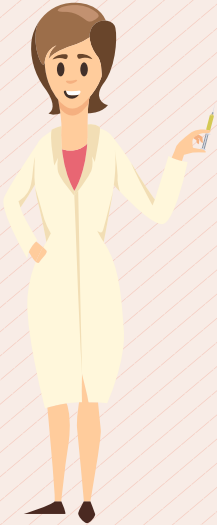
##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의 시작

일교차가 급격히 커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미리 대비한다면 다가오는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 접종 권장시기&주의사항

[출처] 질병관리본부  
[정리] 김미선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한다. 백신 공급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이 3~12개월(평균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을 할 때는 건강상태가 좋은 날, 가까운 병의원을 찾으면 된다. 예진 시, 아픈 증상이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한 후 귀가한다.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것이 좋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부종,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소아의 경우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병원을 찾으면 된다.

###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의 노인,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만성 폐 질환자, 만성 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요양·수용 중인 사람,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병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청소년, 50~64세 인구

####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생후 60개월~18세 소아·청소년





# 11

## 회원사 현황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7. 7. 1. ~ 9. 30.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대광이앤씨 강은주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46번길 15(연산동) <b>T. 051-756-4487</b>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대원글로벌건설 문성진	부산 금정구 학산로13번길 14(남산동) <b>T. 051-516-7960</b>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라이프이앤씨 허진호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6(남천동) <b>T. 051-622-0222</b> 보유업종 : 실내건축	 미강산업 이순희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142(지사동) <b>T. 070-8233-8851</b>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주)삼인디자인건축 신정호	 (주)삼인디자인건축 강재현	부산 동래구 낙민로 18-1, 1층(낙민동) <b>T. 051-959-0404</b> 보유업종 : 실내건축	 선우토건(주) 강준구	부산 연제구 고분로235번길 60-18, 2층(연산동) <b>T. 051-714-5652</b> 보유업종 : 포장
 (주)성화그린 김철용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92-37 <b>T. 051-727-6943</b> 보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	 (주)오주산업 김홍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90, 상가동 407호 (우동, 센텀현대아파트) <b>T. 051-711-0444</b>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	
 (주)청구도장공사 남청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65(전포동) <b>T. 051-807-5383</b> 보유업종 : 도장	 호아디자인(주) 박민철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8층(우동, 부산디자인센터) <b>T. 051-746-2127</b> 보유업종 : 실내건축	
 흥성건업(주) 이용균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61-1(전포동) <b>T. 051-806-3789</b>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화수분건설(주) 정영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72, 1101호(가야동, 엘피빌) <b>T. 051-897-6107</b>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7. 7. 1. ~ 9. 30.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그린텍(대표 : 송인숙, 울산)	강한토건(주)(대표 : 문경환, 경기)
(주)명문토건(대표 : 조용진, 경남)	(주)광원(대표 : 조규익, 양원일, 경북)
(주)삼원인테리어(대표 : 정희정, 서울)	(주)아이디방식(대표 : 김건태, 울산)
(주)영림조경건설(대표 : 최진희, 경남)	(주)연정종합조경(대표 : 조진경, 울산)
(주)우진아이엔지(대표 : 정희선, 충북)	(주)티에스안전(대표 : 남성호, 이계영, 경기)
이지산업(주)(대표 : 문진춘, 경남)	(주)피엔케이산업건설(대표 : 박원수, 서울)
(주)토성토건(대표 : 박동만, 광주)	(주)화인트리(대표 : 강남욱, 경남)
한남토건(주)(대표 : 노성문, 경남)	-
한동건설(주)(대표 : 전용봉, 경남)	-
(주)해원건설산업(대표 : 강안희, 서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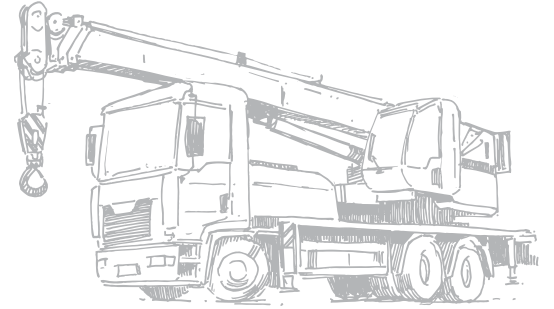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7. 9. 30.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33	70	연제구	137	222
동구	51	103	해운대구	196	266
서구	26	31	수영구	111	163
사하구	70	92	부산진구	181	261
영도구	23	35	북구	74	98
동래구	165	213	사상구	122	149
남구	91	137	강서구	179	244
금정구	224	333	기장군	194	296
<b>합계</b>				<b>1,877</b>	<b>2,713</b>

## 건설업자의 책무

# 부당특약유형 설정 금지



### 가.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7,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부당특약설정금지)

■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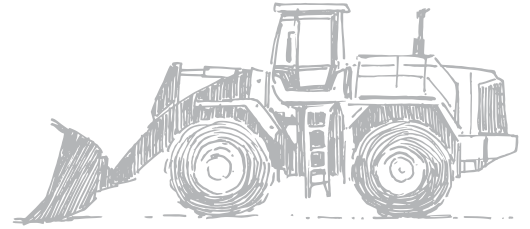
#### 【 부당한 특약설정 유형 】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대관업무(인·허가), 환경·품질관련 비용 전가
  -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발생비용 전가
  -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재작업, 추가작업 등의 지시로 발생된 비용 전가
  -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따른 공기연장 등
-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 인정범위와 동일한 약정은 제외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상규규정에 준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위가 고시하는 약정 등

※ 세부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8호) 참조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행정처분(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6호 및 동법 제82조제1항제9호(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

: 시정명령 ⇒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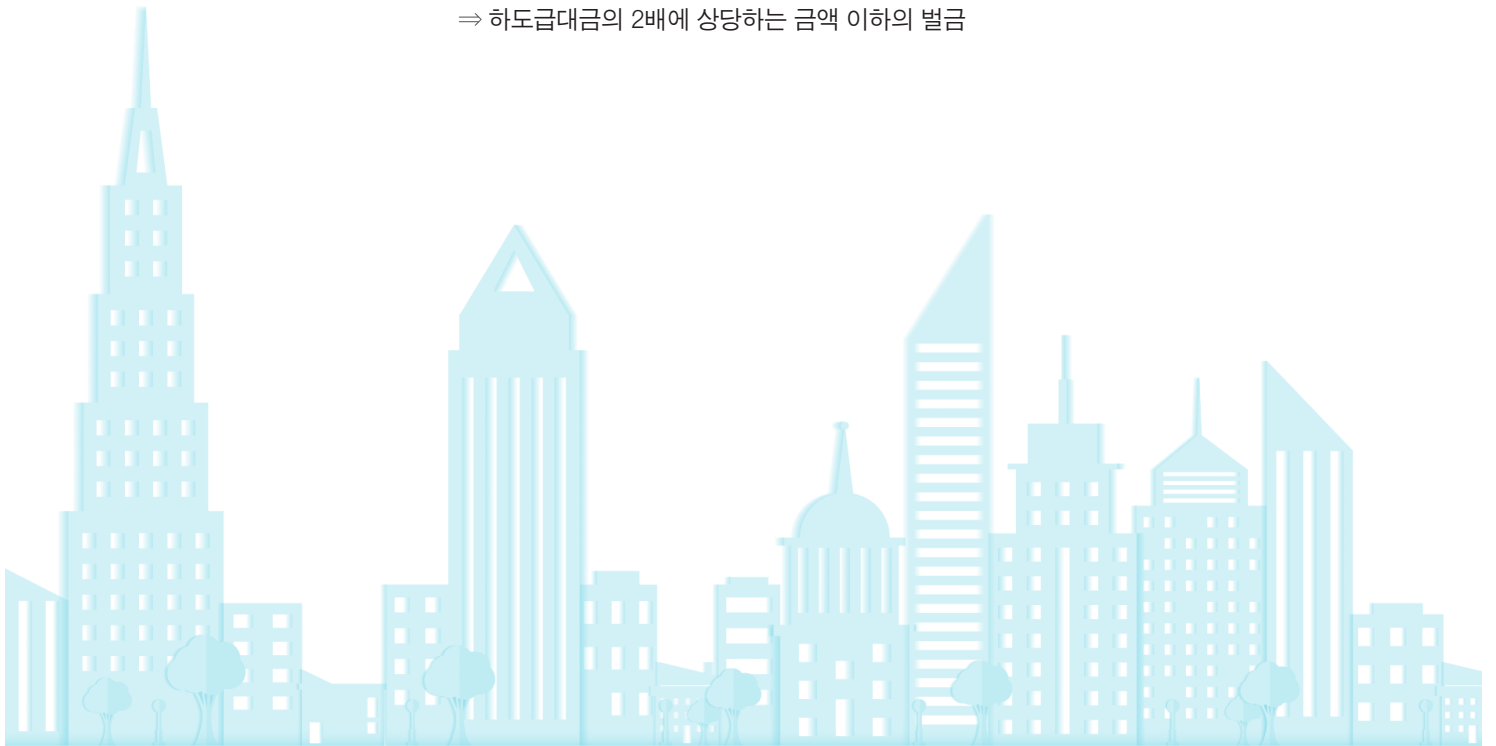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제25조의3 제1항제3호(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

: 시정조치 ⇒ 시정조치에 불응한 때(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행정형벌(건설업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St. Basil's Cathedral



잔혹한 황제의 화려한 기념물

## 성 바실리 대성당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돔으로 유명한 성 바실리 대성당이 있다. 1555년부터 1560년까지 건축된 이 성당은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폭군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차르 이반 4세가 러시아에서 카잔 칸을 몰아낸 것을 기념하여 봉헌되었다. **성 바실리라는 이름은 이후 유명한 성인인 '바실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성당을 설계한 포스트니크 야코블레프는 당시 벽기둥을 중앙으로 여덟 개의 예배당이 대칭되는 복잡한 모양을 의도했다. 그 결과, 비잔틴 양식과 러시아 양식이 혼합된 가운데 첨탑 주변에 8개의 양파 모양 지붕들이 배열되었다. 탑들은 **서로 무질서하면서도 조화로운 매력이 인상적**이다. 지금의 화려한 색깔은 1670년대에 도색된 것으로, 이후 러시아 정교회 성당의 전형이자 모델이 되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당이 완성된 후 차르 이반 4세가 다시는 더 아름다운 건물을 다시 짓지 못하도록 건축가 포스트니크 야코블레프의 눈을 멀게 했다고 한다.

수 세기에 걸친 격변과 전쟁을 거치고도 지금까지 보존되어 모스크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만큼, 대성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글 김미선

부산사회에서는 회원봉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을 주고자 **부산지역 대표 치과의원과  
 의료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체결 의료기관**

구분	의료기관	병원장	소재지	전화번호
1	더스카이치과	배정현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7번길 순천향빌딩 3, 4층	816-7528
2	이유치과의원	박종선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KE빌딩 5층 502호	634-7504
3	스카이랩브란트치과	배지철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 A+메디컬센터 5층	808-2875

● **수혜대상**

부산사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 **협약내용**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 의료기관 우선 진료서비스 제공
- 무료 건강상담 및 무료 건강강좌 지원
- 외래진료 등 비급여 부분 최대 20% 비용 할인

● **이용방법**

해당 의료기관 방문 ⇒ 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임을 고지  
 ⇒ 협회 사무처로 신분 확인 ⇒ 의료혜택 지원

● **기타사항**

의료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기획관리부(☎633-0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2016.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써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 1. 교육과정

#### 가. 교육일자 및 장소(부산)

회차	교육일자	교육장소
3차	2017. 11. 2.(목)	부산교원빌딩(☎051-602-3003, 부산역 광장 옆,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16, 지하2층)

※ 타 지역 및 다른 일정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edu.kosca.or.kr) 확인 후 신청 가능.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용이 과다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나. 교육내용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 다. 교육대상 :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교육]  
 '16. 2. 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업자 [임의교육]  
 '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 대표자 수료 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감경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감경 불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시행일: 2016. 2. 11.)]

#### - 교육 참석대상자

법인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개인 : 대표자

#### 라. 교육시간 : 1일 8시간(9시~18시)

#### 마. 교육비 : 15만원(교재·중식 포함)

### 2. 신청방법

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나.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80)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중앙회(회장 신홍균)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9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200만 건설인 명의로 작성된 호소문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SOC 예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도 SOC 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 전건협 중앙회 제11대 회장에 김영윤 보강기술(주)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오는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4년간 전체 전문건설업계를 이끌게 된다. 김영윤 당선자는 1953년생으로 전건협 중앙회 회원부회장, 토공사업협회의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윤 당선자는 공약발표를 통해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존중받는 전문건설' '하도급 부조리 없는 전문건설' '모두가 하나 되는 전문건설' 등 세 가지의 전문건설상(像)을 제시해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 부산시회 2017년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 아래 일정은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주요 일정
2017.10.30(월) 07:00	2017년 제3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2017.10.30(월) 14:00	건설분야 무료자문 및 법률상담
2017.11.09(목) 11:00	제10, 11대 회장 이취임식
2017.11월 중순 (예정)	사랑의 연탄배달

#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삼보이엔씨(주)  
**성주환** 부장

**코** 스카레터에는 협회소식부터 회사에 필요한 정보 및 문화공간까지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알찬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회사 신고사항이나 의무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회계, 세무 등에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주요 이슈만이라도 다루어주신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선광건설(주)  
**임채병** 대표이사

**작** 열하는 태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짧은 소매로는 감당하기 힘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산전문건설협회의 문턱을 넘은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여 30년 건설인생에 있어서 올해처럼 공사수주에 목마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더불어 우리 건설인은 국민생활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일념으로 어제 또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전진 또 전진할 것입니다. 전문건설협회의 신문은 정보 홍수 속에서도 전문신문의 역할을 다하여 건설업에 유용하게 접목시켜 구독하고 있으며, 코스카레터는 다소 신문과 중복되는 매력은 있으나 심층 분석 등 마치 신문의 사실처럼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3호는 권두사의 김종경 건설본부장 말씀처럼 코스카레터는 건설신기술과 신공법을 소개하고 변경된 건설 관련 관계법령과 제도를 알려주고, 회원사의 실무능력과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격조 높은 건설 창조에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마른 건설인의 정신문화 창달을 일깨우는 코스카레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A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독자퀴즈

####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북청건설(주) 주임 신수진
- 동우기업 이사 조선심

####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3개 현장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19일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몇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얼마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개정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 (기간 : 2017.11.30(목)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기업은행이 만나  
전문건설 발전을 위해  
더 큰 혜택을  
건설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전문건설회관 4층)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